

현장실습 체험 후기 공모전 수상작 모음



[대상]

내 인생의 첫 번째 기회, 현장실습!

소속 : 컴퓨터공학부

이름 : 이준영

실습기관 : AhnLab

연수생 선발의 최종 면접 심사가 있던 날의 떨림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다. 왼쪽 끝자리에 앉은 면접관은 자꾸만 명치로 손을 가져가던 나에게 혹시 몸이 좋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게 아니었다. 극도로 떨렸을 뿐이다. 면접장을 나와 정오의 햇살이 쏟아지는 안랩 계단에 앉아 이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상상했다. 면접에서의 모든 긴장이 사라지고, 소파에 엮드려 TV를 보던 어느 오후 합격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렇게 나의 6개월은 시작되었다.

절실하게 안랩 연수생을 원했던 만큼 어느 때보다 진지한 자세로 인수인계 기간을 지냈다. 사명감도 있었지만 부담감도 있었다. 처음으로 겪는 회사 생활의 긴장감이 풀릴 새도 없이 한 달이 지나갔다. 담당 제품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테스트 방법을 하나하나 깨치며 두 달째를 지낼 무렵, 자연스럽게 소속된 팀의 역할과 제품 테스트의 큰 흐름이 눈에 들어왔다.

글로 익힌 것들을 체험하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다. 주변 선배 직원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스스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길지 않은 나의 생애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진행된 날들이었다.



안랩 창립기념일 행사(3/15)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무에서!”

학부 생활 중 소프트웨어공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다. 담당 교수님인 임은기 교수님께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론 상으로 배우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 그 당시에는 어렵고 적응 안되는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안랩 연수생

을 시작하고 한달 후엔 상황은 역전되었다. 안랩의 대표 제품인 V3 Lite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강병문 선임님께 배웠는데, 임은기 교수님께 배운 개발 프로세스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학부에서 배울 때는 막막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활용되는 지 두 눈으로 보니 너무 재밌고 흥미로웠다. 부족한 나에게 이런 깨우침을 주게 해준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임은기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또 하나의 가족”

하루는 24시간.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은 아침 8시. 퇴근하는 시간은 6시. 수면시간 6시간을 제외하면 18시간 중 10시간을 회사에서 보낸다. 하루에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극히 적고 팀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이다. 하루, 하루가 즐겁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다.

모두를 인생 선배로 여기고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조언을 구하다 보니 어느새 이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며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있었다. 나 또한 이들에게 한 명의 연수생이 아니라 한 명의 가족으로 남고 싶다.

“진정한 리더란 무엇이며, 팀원은 무엇인가”

단순히 팀웍이 좋아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기업에서 인턴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인턴 혹은 연수생 생활은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 않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깊이를 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만큼 연수생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팀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크다. 그런 생각을 나 역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원들이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고 연수생 신분이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팀장님과 팀원들에게는 연수생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가진 역량과 열정이 중요했던 것 같다. 어느 때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팀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 때마다 믿고 일을 맡겨준 팀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앞으로 어떤 조직에서도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역량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 팀원이 되고 싶다.

[금상]

소중하고 값진 추억으로 남을 현장실습

소속 : 기계공학부

이름 : 한명수

실습기관 : (주)원바이오젠

[호주에서 현장경험 그리고 새로운 도전]

저는 호주에서 현장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기제 현장실습을 지원하였습니다. 호주에 가기 전 대학생활 3년 동안 남들처럼 학점관리와 토익점수를 향상하기 위해 수동적인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2011년 SBS 해외취업특집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호주 재생에너지 회사에 취업한 27살의 용접공 김진구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를 만나고 싶어 호주로 향했습니다. 그와 같이 2개월 동안 현장에서 용접일과 기계 및 배관을 보수하는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배운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장 체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을 경험하고 저는 귀국하자마자 '교내 현장실습'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의 현장실습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지만 현장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배운 값진 경험]

구미 공단에 있는 원바이오젠 회사에 현장실습을 신청하였습니다. 평소 메디폼 등과 같은 의료용 바이오 신소재에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의료용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 공장 내에는 최신 장비를 포함한 각종 생산기계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 회사에 지원한 것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바로 현장 업무를 하고 싶었지만,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임 생산담당자로부터 일정 기간 안전교육과 작동원리와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실습 첫 주 동안, 선임 생산담당자로부터 생산업무를 포함한 회사에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 현장에서 쓰이는 실무용어와 생산 일지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 생산기계의 작동원리와 작동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현장에서의 첫 주는 저

에게 기계공학도로서 부끄러운 마음과 기계를 이해해보고 싶다는 설렘을 들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을 기초로 기계를 이해하고, 배울 수 없던 새로운 것들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생산 담당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기계도면을 보며 생산기계의 작동원리를 물어보며 기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생산 담당자와 함께 국내에서 2대밖에 없는 최신 자동화 생산기계를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를 작동하면서, 몇백 m의 원재료가 감긴 롤이 세팅한 특정 크기로 끊기 되어 자동으로 포장까지 완성품을 생산하는 최신 생산 공정이 정말 신기했고, 앞으로 진로 선택을 함에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의 크기와 이름을 익히는 데 힘이 들었지만, 암기하기 위해 꾸준히 관심을 뒤서 나중에는 혼자 생산일지 등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끝나자 선임 생산담당자분께서 작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노후화 된 기계의 부품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개선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불필요한 생산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제작을 하고 만들어서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처음에 많은 긴장이 되었지만, 선임 생산담당자의 도움과 아이디어를 받아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계요소설계’ 과목에서 배웠던 다양한 지식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개념설계’ 등의 경험들을 현장에서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었고,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동생처럼 친근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선임 생산담당자분과 직원분들을 만난 것은 대학생활 동안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소중한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비록 한 학기라는 짧은 기간과 실습생이라는 직책으로 실무에서의 생활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많은 부서로 나뉘어 있어 부서 간의 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며 이러한 느낀 점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직원분들에 환한 미소 지으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니다. 그 결과 많은 직원이 ‘명수 학생~여기 와서 이것 좀 도와줘’, ‘명수 씨 오늘 일 끝나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와 같이 직원분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뛰어난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친구를 대할 때나 어른들에게 대할 때 먼저 웃는 미소로 이야기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얻은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공모전 및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조원들에게 친절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여러 공모전 수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학년이고 한 학기가 지나면 졸업을 하게 되지만, 만나는 후배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할 기회가 생기면 꼭 도전해봐!’. 이처럼 현장실습은 저의 대학생활 동안 값진 경험이었고, 앞으로 졸업하더라도 후배들에게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선배가 될 것입니다.

[금상]

6주, 인생의 가장 강력한 기억 - 중국 장춘

소속 : 컴퓨터공학과

이름 : 변성영

실습기관 : 장춘이오세프유한공사

인턴 수행 지역인 중국 장춘의 일기예보를 보니 영하 20도 아래로 가는 낮은 기온을 보니 두려움 반, 궁금함 반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춘, 낯선 중국에서의 일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주 중 첫 3일은 마치 3주와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하 20도가 평범한 온도로 취급받는 땅에서 처음에는 추위만이 관심사였지만 실습을 진행하며 업무와 업무 외에 주변을 돌아다니며 여러 문화적인 배움 등 다양한 관심사가 생겨났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훌쩍 흘러 6주가 지났다는 생각에 아쉬기 까지 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한국 IT관련 기업의 기술을 중국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관련 자료를 찾아야 했고 저와 의사소통이 필요 했으므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인이 팀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팀에서 팀장을 선출해야 했는데 이번기회에 꼭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팀장을 자처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팀의 진행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정한 것이 잘못되어 팀원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겪으며 팀의 과제 진행 방향을 진행하는 팀장의 막중한 책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낭비 할 수 있었지만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서 큰 문제로 번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팀장의 위치에서 느낀 것 보다는 팀의 구성원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협업에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 몰랐음에도 임무를 완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인 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IT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된 키워드와 기술들에 대한 설명을 풀어서 해주고, 관련된 중국어 자료가 나올 경우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언어적인 장벽, 소고기 볶음밥을 사먹고 싶어도 중국어로 말하는 법을 몰라 소 울음소리를 냈어야 했던 기억, 이처럼 타국에서의 언어 표현 능력은 갓난 아기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 함께 하였기 때문에 팀이 작성한 보고서가 실제 회사와 계약 체결 까지 되는 정말 뿌듯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턴을 진행하며 이전의 학교생활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과제를 진행 할 때 팀원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끌고 갈 생각 보다는 배제하고 혼자 하곤 하였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 그 일들이 아주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실제 업무를 통해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중국은 어느 곳보다 기회가 많지만 결코 만만한 땅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 어느 곳 보다 사람관계를 중시하는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시장만 바라보고 돈을 벌기 위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성공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스타벅스와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이 초기 시장 진출에 실패한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급여가 없는 인턴생활이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인생의 그 어느 순간보다 값진 6주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온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인턴을 가는 것을 누군가 망설인다면 꼭 한번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보다 외적인 배움이 더 많으며 성숙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을 가기 전 금전적인 문제로 부담이 되었지만 현장 실습지원센터에서 학생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 노력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현장실습, 이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든다.

소속 : 신소재시스템공학부

이름 : 이정화

실습기관 : (주)이그잭스

저는 2013.01.07~2013.02.01 까지 (주)이그잭스라는 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였습니다. (주)이그잭스는 케미컬, 전자재료, 인쇄전자 회사며 저는 구미의 Ag Paste 부서에서 현장실습을 하였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며 제가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이 수기를 작성하였습니다.

1. 현장실습 왜 할까요?

저는 사실 작년 하반기 취업 실패 후 '방학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현장실습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실습을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왜 이걸 진작 해보지 않았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스펙이 하나 더 생긴 것도 있지만, 현장실습을 하며 현업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실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 많은 조언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찾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입사하기 전 그 일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저는 현장실습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찾기를 추천합니다. 저 역시 이 현장실습을 통해 전자재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 전자재료 회사에 지원하면서 이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실습을 하며...

현장실습을 가기 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배우자.'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Paste와 Vehicle이 묻은 통을 아세톤으로 닦는 일이나 바인더 자르는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 일을 하면서도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을 계속 질문하며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실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자 나중에는

점도 측정하는 것도 가르쳐주시고 장비 투어도 하면서 실무를 직접 경험 해보았고, 실무자와 많은 교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클린 룸에서 일하는 것도 학교에서는 해 볼 수 없는 일이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클린룸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조금 불편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방진복 입고 일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생산직에서 일하면서 저는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하여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지금도 연구개발분야로 취업 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경험을 쌓으며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실습을 한 번쯤은 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3. 아쉬운 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중소기업이라서 그런지 현장실습생에게 어떤 일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짜여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아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와 회사가 상의를 하여 좀 더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한다면 체계 적으로 실습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4. 현장실습을 되돌아보며...

어느 곳에 가서든 마찬가지지만, 현장실습도 본인의 마음가짐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차장님께서도 여자인 저에게 일 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불편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먼저 할 일 이 없는지 물어보았고 힘든 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뜻 깊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힘들다고 그만 두거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힘든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나중에 자신에게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현장실습을 하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스펙 한 줄 채우고 말지'라는 생각 보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습 기간을 보냈으면 좋 겠습니다. 귀찮아 할 정도로 질문하고 직접 해보고 경험하여 되돌아보았 을 때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며 뿌듯해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차 장님께 이그잭스에 입사하라는 말을 들었기에 저 나름대로 보람 있는 현 장실습을 보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은상]

경험이라는 보물을 발견하다.

소속 : 전자공학부

이름 : 서효진

실습기관 : 구미 STX 솔라

추위와 취업의 압박이 점점 다가오는 4학년 2학기 말을 보내고 있을 즈음,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이공계열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이 있었다. 물론 분야에 따라 특정전공들의 연관성이 많을 수도 있고,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지식들이 실무에 적용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보는 것은 그 어떤 전공 공부보다 더 값어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취업하기 전에 회사생활의 업무를 미리 체험해보는 것 또한 충분히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4주간에 방학 중 현장실습체험이라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구미 STX 솔라 에서 하는 현장실습이 나의 전공과도 관련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2학기 기말이 끝난 후, 현장실습 지원센터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현장실습 중 수행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과 주의 점에 대해서 듣고 난 뒤 STX 솔라 측과 접촉하여 출근 날짜를 정하였다. 첫 출근 날이 다가오고,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길을 나섰다. 낯선 출근길을 거닐며 첫 출근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품은 채 많은 생각을 하며 발걸음 내딛었다. 회사에 도착한 후 연구개발 부서에서 가장 높으신 분과 부장님과의 면담을 한 뒤, 실습생들을 전담해서 지도하는 대리님을 소개시켜 주셨다. 회사 안에서 지켜야할 사항들과 앞으로 실습생활에서 하게 될 업무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은 사무실 안에서만 태양전지 공학에 관련된 서적을 공부하였고, 처음 클린룸을 거쳐 현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설비와 기계들을 보는 순간 매우 놀랍고 흥미로웠다. 반도체공학과 관련된 지식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공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여태까지 배웠던 학문들을 왜 배웠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는 순간 이었다. 비록 전자공학부에서는 태양광시스템에 관련된 과목만 있어서, 태양전지 공학에 대한 지식은

많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반도체 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다. 현장실습에서의 주된 업무는 태양전지 셀의 성능을 측정하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양자효율측정, IR측정, Dark I-V특성 그래프 측정 등이었는데 결국에는 모두 태양전지의 효율과 관련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이다. 엔지니어들은 이런 파라미터들의 향상된 특성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서의 효율저하 원인은 장파장에 의한 불완전한 흡수, 단파장에 의한 열손실, 표면반사에 의한 손실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들을 최소화하려는 공정과 원천 소스 가변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장실습을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본인의 과와 동일한 분야에서 취직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전공분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실습을 하면서 한 엔지니어 분으로 부터 좋은 조언들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일하는 전공에 관한 역량도 회사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건 사람과 사람사이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일을 한다고 해도 원활한 의사소통 없이 개개인의 성과를 위해 경쟁의식을 갖고 생활하게 된다면 회사 내의 개개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것이라 하셨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친밀감과 깊은 유대감이 형성된 조직에서의 일은 더욱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느껴져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셨다. 이러한 좋은 얘기를 들으며 일상적인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몇몇 엔지니어 및 오퍼레이터들과 친해 질 즈음 어느덧 4주간의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고, STX 솔라 예서의 현장 실습은 끝이 났다.

4주간의 실습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지식들은 3점의 학점과 소정의 실습수당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학교생활을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함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쳐서 좋은 학점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좋은 평점을 받은 학생들이 반드시 회사생활을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 적성이 맞고, 열정이 가득하다면 좋은 회사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취직하기 전에 회사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를 미리 깨닫고 간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회사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러한 점을 현장실습 체험은 충분히 실현 시켜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느꼈으며, 비록 4주이지만 사회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해준 시간 이었다고 생각한다.

[은상]

짧은 시간 속 큰 경험

소속 : 정보나노소재공학과

이름 : 이영리

실습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방학 중 현장실습을 지원했던 당시 막바지 4학년. 토익은 어림없고 공모전, 수상 경력은 없는데다 변변히 인턴 경력하나 없는 나의 현재에 좌절하면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낸 것 같지 않았는데 나의 이력서에는 4년이란 시간이 무참히 붕괴된 실상을 나타내는 듯 텅 빈 칸들만 가득했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어 무엇이랴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두 손 놓고 지쳐가고 있을 때 학교 홈페이지에서 방학 중 현장실습 공지가 떴습니다. 방학 동안 나에게 있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에 현장실습을 지원하게 되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실습을 하는 경험은 처음이었고 실무 경험은 저에게 없었기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위해 이틀 전부터 그 곳에 찾아가 미리 장소도 알아놓고 늦지 않도록 준비를 하여 일찍 나갔습니다. 긴장을 하며 정문을 지나 출근 장소에 도착했을 때 담당자 분을 만났을 때 왠지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총 5명이 배정되었는데 각각 전공분야에 맞게 실험실이 다시 나뉘어졌습니다. 첫 날엔 무엇을 할지 몰라 당황하고 책상에 앉아 두리번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 곳 실험실의 박사님께서 첫 날에 친절하게 실험실 업무과악이 먼저라면서 논문 한 장을 내어주시고 제가 현장 실습하는 한 달 내내 한 가지라도 꼭 얻어가길 바라며 실습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배정받은 5명의 학생들 중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습생이라는 직위가 담당자 분들에게는 귀찮고 뒷전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실험실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모두 저를 한 가족처럼 생각하여 챙겨주시는 점에 대해 지금까지 그 따뜻함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현장실습 덕에 저에겐 소중한 관계가 하나 더 형성되어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또한 부족했던 영어실력이 향상

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제가 업무파악을 할 수 있었던 수단은 실험실 논문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매일 논문 한 개씩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업무파악과 동시에 영어실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은 소재분야입니다. 화공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실험실에서 어떤 업무든지 제 전공과 완벽하게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여러 분야에서 다른 전공자들이 모여 일하게 될 때 어떻게 나의 전공을 살리고 화합하여 효율적인 일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실습을 했다는 경험을 가질 수 있고 향상된 영어실력을 가질 수 있으며 나의 전공을 업무에 조합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첫 날 출근해서 할 것은 업무파악이다. 제가 지원한 회사에서 어떤 부서를 배정받을지는 모르는 일. 각 부서마다 업무의 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정한 분야, 직업일지라도 배정된 부서에 맞게 그 조직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업무 파악을 한 후에는 조직에 적응을 하라. 아무리 제 능력이 좋아도 조직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직이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 제가 그 조직에 적응하지 못했더라면 현장 실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 회사에 적응을 마치면 최선을 다해 나의 업무를 찾아 스스로 일을 하여라. 제가 할 일을 알고 업무를 파악하고 나니 제가 할 일들이 눈에 보였고 무언가 하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구지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에 힘쓰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도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 졸업예정자입니다. 현장실습 덕에 취업에도 좋은 전망이 보입니다. 현장실습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배우기도 어떤 일을 끝맺기도 애매한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자신감을 얻는 기회였습니다. 제게 부족한 걸 채우는 시간이었고 몰랐던 지식을 얻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한 조직에 소속되는 경험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실습 후 남은 흔적들은 책 한 권이 된 논문들입니다. 자칫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방학을 배움으로 결실을 맺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 선배들 중 현장실습에 대해 저에게 언급을 해준 선배가 있었더라면 저에겐 더 많은 경험들이 쌓여져 있을 텐데. 현장 실습에 관한 정보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서 현장실습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후배님들이 현장실습으로 많은 경험을 쌓길 바라며 글을 맺습니다.

[동상]

KERI에서의 4주간의 추억

소속 : 고분자공학전공

이름 : 이희원

실습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겨울방학이 한 달이 허무하게 지나고, 아, 이렇게 마지막 겨울방학을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뭔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걸, 연구소에서 현장실습생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침 집이 창원인데 창원의 전기연구원도 명단에 있었다. 원래 나의 전공은 고분자공학전공인데 전기연구원은 정말 전공과는 연관이 없는 거 아닌가 하고 대전이나 다른 지역도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창원대 화공과에 다니는 친구가 기업탐방을 다녀왔는데 우리의 전공과도 관련이 있는 센터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수 있나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창원의 전기연구원에 지원을 해 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 현장실습 설명회를 한다고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린에너지관으로 갔다. 다행히 전기연구원에서는 CNT, graphene 등 수업시간에 들어 본 것들을 응용으로 연구하는 센터로 간다고 들었다. 전기연구원에서의 현장실습은 4주간으로,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다고 했다. 졸업하기까지 2학기가 남은 상황에서 전공학점이 모자랐었는데 3학점이나 주고 현장실습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다. 이런 기대와 설렘과는 달리, 전기연구원으로의 출근일이 다가올수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있을까, 밥은 누구랑 먹어야 할지 등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오면서 첫 출근 일을 하루 앞두고 일요일, 준비하라고 했던 서류들과 간단한 필기구 등을 챙기고 빠진 것은 없나 생각하며 뜯눈으로 밤을 샜다. 그러다 늦잠을 자서 첫 출근 일부터 엄마에게 신세를 지며 전기연구원으로 갔다. 전해들은 데로 경비실로 가서 3연구동으로 안내를 받으라고 했다고 경비원 아저씨께 말씀드리니, 신분증만 맡기고 출입증만 건네주시면서 3연구동의 위치를 알려 주셨다. 추운 날씨 탓인지, 긴장해서 인지, 자꾸 두근두근 거르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3연구동에 다다르자, 출입문은 그냥 열릴 리 없었다. 문을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그러다가 아까 받은 출입증을 이곳저곳에 데어 보니 텅 하고 문이 열렸다. 행정실로 가니 나와 같이 금오공대에서 온 전자과 학생 한명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었다. 조

금 있으니 행정실 언니가 오시고 서류를 제출하고 5층으로 갔다. 어두운 복도 끝에 나노융합기술연구센터가 있었다. 센터장실에 센터장이신 이건웅 박사님과 잠깐의 얘기를 나누고 나의 진짜 일터인 옆방으로 갔다. 월요일은 한주간의 실험의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실험을 전개해 나가야 할지 등을 토의한다고 했다. 나와 같이 갔던 전자과 학생은 자신은 이런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못했다고 다른 센터로 갔고, 그나마 나의 작은 희망도 떠나갔다. 간단하게 인사를 한 뒤, 회의 테이블에서 연구원들에게 방해가 되진 않을까 조용히 앉아 책만 읽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밥 먹으러 가자고 나도 데리고 가셨다. 첫 출근이면서 첫 외식을 나갔다. 그리고 나노융합기술연구센터에 계신 연구원들과의 첫 대면이었다. 어색하게 밥을 먹고 첫 출근은 앞으로의 현장실습을 어떻게 다녀야 할지 생각한 날이었다. 다음날 부터는 아침 7시에 일어나 밥까지 챙겨 먹으면서 8시가 되지 않은 시간에 출근했다. 꽤 이른 시간이었지만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출근시간인 9시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해 커피포트의 물을 채우고 종이컵이나 차들을 채워 놓고 마음 편히 차를 한잔 마시고 있으면 연구원분들께서 오셨다. 한 연구원 언니께서 연구실들을 보여주시고 언니가 맡고 계신 실험들을 도와달라고 하셨다. 학교에서 하던 고분자합성실험과는 크게 보았을 때는 다른 점이 많이 없어 쉬워 보였다. 하지만 강한산과 호흡기과민성 용매들을 많이 사용하는 면에서는 훨씬 위험하고 어색하기도 했다. 실험을 하다 보니 금세 점심시간이었다. 강한 용매냄새와 시끄러운 기계소리가 나는 실험실에서 나와 보니 바깥은 너무 고요하고 향기로웠다. 전기연구원 전경은 겨울이라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있는 게 무색할 정도로 포근하고 학교 캠퍼스만큼이나 시설이 좋았다. 오후에도 실험실에 내려가 graphene, CNT의 분산, 산처리, 중합, 중합 후 용매제거, 웨이퍼에 얇게 입혀 SEM을 찍는 등 이러한 과정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2주까지도 이어지는 실험을 옆에서 도왔다. 또 DSC, UV, IR, 원심분리기, SEM 등 기기의 사용법을 배우고 화학실험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느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방해는 되진 않을까, 잘 적응할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지만 우리 과 선배님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원들께서 편한 막내처럼 대해 주셨다. 나노융합기술연구센터 연구원들과의 회식을 가지며 아무 사고 없이 4주간의 실습을 끝마쳤다. 매일 같이 출근하던 버스안 사람들, 반갑게 인사해 주시던 경비원 아저씨들, 바쁘면서도 나를 챙겨 주시던 연구원 언니 오빠들, 박사님들. 이제 1년 뒤면 실습생이 아닌 진짜 막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사회가 재미있는 곳인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사회도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기회를 주신 현장실습 지원센터에 감사합니다.

[동상]

나를 성장 시키게 해준 현장실습

소속 : 기계공학부

이름 : 최해룡

실습기관 : (주)효성

한 회사의 직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직장은 주)효성이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을 다니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 주/야 교대 근무라서 거의 매일 직장에 나가시며, 명절이나 휴가 때도 휴가를 반납하며 현장에 나가시기도 하셨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몸담았던 기업에 내가 현장실습을 하게 된 것이다.

평범한 대학생 최해룡. 그동안 항상 계획해 왔지만 막상 실현 하지 못하고 있던 나는 어쩌면 집안 사정의 경제적인 여건과 또 금오공과대학교 4학년생으로써 졸업전의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위해서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 전에도 방학 중 현장실습을 학교에서 추천된 기업에서 2번 체험을 해 봤던 터라 이번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근데 우연찮은 기회로 우리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는 주)효성 언양 공장에서 현장 실습 승낙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재학 중의 단 한 번뿐인 학기제 현장실습을 시작 하게 되었다.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공장의 모습과 지금 성인이 되어서 방문한 공장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정말 이런 곳에서 내가 근무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공장의 규모는 그때보다 더 어마어마 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직장 동료 분들과 어릴 때의 나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몇몇 아저씨들과 같은 곳에서 일 할 수 있다는 것에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적응이 잘 안될 정도로 기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다.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작된 나의 현장실습 첫 일정은 공장 견학 및 오리엔테이션과 인사미팅. 부푼 마음을 안고 인사팀의 회의실 장으로 들어섰다. 쭈뼛쭈뼛 거리고 어색해 하는 나와 달리 관계자 분들은 환한 미소로 나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그렇게 인사를 끝내고 회사 복을 받고 공장 견학을 할러 하던 즈음.. '나는 운이 좋았던 것일까.' 마침 그 곳에 내가 다니는 금오공과대학교의 선배님이 계셨었다. 그렇게 선배님의 인술을 받아 공장을 견학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한결 편하게 공장을 견학 할 수 있었고 더 세세히 물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니 내가 배치 될 부서를 알려 주셨다. 다행히 내가 배치된 부서는 SC생산팀 1공장 생산관리 부서로 배치가 되었는데,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곳이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였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곁에서 더 꼼꼼하게 일을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다. 그 동안 우리 아버지께서 근무 하시는 기업에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 하고, 또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몰랐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다. 그렇게 처음 2달간은 아버지의 보조 사수로서 연선기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연선기의 작업 안전 수칙부터 작동 방법, 그리고 도면 해석까지 체계적으로 배웠다. 연선기에 대해 배울 때에는 다행히 학교에서 기계요소설계라는 과목을 들었던 덕분에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는 분해 조립 및 직접 시가동도 해보고 생산 완료된 물품의 직접적인 포장 과정까지.. 힘들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 공장에 들어 온지 3달째로 접어들면서 생산팀에서 하는 일은 그만 배우고 본격적으로 생산관리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선배님께 받게 되었다. 우선 그러기에 앞서 SC라는 생산품이 어떤 것 이고, 공정 과정은 어떠한지, 그러한 기초 공정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배웠다. 이 교육은 금오공대 선배님께 담당하셨는데, 친절하게 교육 내용이 담긴 자료들을 프린터 해주셨다. 그런데 페이지수가 40~50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니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집에서 공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훨씬 편하게 공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SC 공정에 찾아가 다시 견학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정에 대해 훨씬 수월 하게 이해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생산관리자로서 기본적인 업무와 원재료 수입처의 관리와 수출 기업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나의 개인 컴퓨터를 할당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 했고, 내가 하게 된 주 업무는 현장에 상주 하면서 설비보전에 대한 감시 보고와 설비 시설 서류 관리 및 시간에 따른 출하 물품 수량 체크 및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아서 수행 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몇 개월이 흘러.. 현장실습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내 컴퓨터의 자료들을 항목별로 정리 하고, 정리한 자료들을 선배님께 인계했다. 마지막에 모두에게 인사할 때는 덤덤했는데 오히려 내 컴퓨터 책상을 정리할 때가 왠지 더 울컥 했던 것 같은 느낌..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찾아가서 한분한분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의복을 반납했다. 이렇게 학기제 현장실습의 15주를 수료하게 되었다.

3번의 현장 실습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방학 중 한 달 현장실습은 어떤 곳을 깊게 경험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인 것 같고, 후배들에게 학기제 현장실습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해보길 권유 해주고 싶다.

[동상]

우연적 흥미에서 필연적인 꿈을 위한 LG전자와의 만남을 통해 배운 삶

소속 : 기계공학부

이름 : 안상태

실습기관 : LG 전자

2학년 2학기 때 기계설계입문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과목인 만큼 프로젝트가 몇 가지 주어졌고 마지막 프로젝트는 태양열 조리기를 효율이 높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조가 증명된 파라볼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 때 친환경 관련 프로젝트는 처음이라서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고 싶어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력과는 달리 결과는 좋지 않았고 리더로서 조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열정을 쏟았던 만큼의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또 다른 관심분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태양열 분야에 흥미를 느끼면서 교과 시간 외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교내 도서관에서 태양열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어려운 논문들은 되도록 하나의 주제를 집중하며 읽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시간이 흐른 뒤 3학년 2학기 때 LG전자에서 현장실습을 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우연으로 시작되었던 흥미는 필연적으로 꿈을 위해 한 단계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월 2일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출근한 LG전자 SE팀!!! 대기업인 만큼 철저한 출입 통제와 검사를 통해 긴장감은 더해졌고 대기업은 선, 후배 관계 그리고 직속상관의 관계가 철저하다는 인식과는 달리 생산라인에 계시는 생산직 분들과 첫 만남에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해주셔서 긴장감이 친근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방진복을 입고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기계들이 넘쳐났고 처음 보는 공장 안의 내부 모습이 마냥 신기하였습니다.

넋이 나가 있던 저희를 선배님이 친절하게 박막 SI 태양전지 공정에 대한 기계들의 명칭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염산과 옥살산 용액을 이용한 TCO 표면 처리를

하는 Etching기, TCO 패턴 간의 절연 여부 검사를 하는 I-V Checker, 공정에서 가장 고가를 자랑하며 진공 챔버 내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해 원료가스를 반응시켜 박막을 증착시키는 PECVD, 진공 챔버 내에서 플라즈마에 의해 생성된 Ar 이온을 타겟과 충돌시켜 ZnO, Ag, Al 박막을 증착시키는 Sputter, 그리고 직접 우리가 두 달 동안 단파장의 빛을 시료에 조사한 후 반사되는 광을 분석하여 박막 구조 분석을 하는 Raman / Ellipsometer의 사용법을 들으며 하나의 책임감이 생기게 된 것에 뿌듯하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Cell 효율 측정, 단일 막 전도도 측정 등을 직접 해봄으로써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할 때 생산라인에 계시는 기장님은 항상 안전이 중요하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고 재차 강조하시며 업무보다는 건강이 최고라고 하시고 저희가 무사히 2개월의 근무를 끝내고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가길 바라셨습니다. 현장에서의 업무는 실수가 없어야 하고 위험한 화학물질과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의 분위기가 존재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모든 일이 되지 않듯이 모두가 화합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의 업무가 있었다면 사무실에서도 연구원님들과 같이 일하며 주어진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Module에 관한 프로젝트 발표를 맡았었고 Science Direct 사이트를 통해 논문을 찾아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원님들께 모르는 이론용어를 질문해가며 전문적인 지식을 쌓음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곤란한 질문에도 흔쾌히 대답해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산직 분들과 연구원님들 사이에서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이 두 달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고 현장실습 마지막 날 연구원님들이 모인 곳에서 Module에 관한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학교 프로젝트에서는 리더로서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님들 앞에 서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를 담당 해주셨던 책임연구원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농담을 던지시며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고 프로젝트 발표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식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라고 하셔서 LG전자 SE팀 분들과 풋살을 못해 아쉬웠다고 말씀드렸더니 연락을 하여 불러주겠다고 하셨는데 말씀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4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풋살팀에 저의 이름을 포함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을 듣고 정직원이 아니었던 연수생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대기업이라는 딱딱한 이미지와는 달리 따뜻한 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LG전자 SE팀에서 2개월 동안 전문지식에 관한 이론과 가족 같은 분위기의 동료애, 정이 많은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2013년 가장 행복한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여 LG전자와 필연으로서의 관계를 맺어 나가고 싶습니다.